



그리고 錢俶王이 佛學을 崇尚하여 永嘉集을 讀誦하다가 「同除四住」라는 言句를 解得하지 못하고 德韶 國師에게 質疑하니 國師는 다시 義寂大師에게 問議하라 하기에 大師를 불러 물었더니 答하기를 이것은 天臺智者大師의 法華玄義에 있는 語句이나 中國本土에는 모두 散失되고 高麗國에 많은 典籍이 保存되어 있으니 이것을 求得함이 어찌하냐 라고 하였다.

그대의 中國은 天寶末年 安祿山 史思明의 兵亂과 唐武宗의 會昌破佛(八四五)과 周世宗의 破佛殿寺(九五五) 등의 法難으로 典籍을 焚燒하고 殿塔을 破壞하여 殘編斷簡조차 求하기가 어려워 實로 暗黑時代가 되었다. 그러므로

專論述하여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今日에 이르도록 天臺宗의 寶典으로 삼는 바이다. 이때의 再興으로서 今日의 中國佛敎文化가 있게 된 것과 또 이 陀羅尼經도 高麗法師 諦觀의 陰德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實로 感慨無量한 것이 라고 아니할 수 없다.

寶篋印陀羅尼經은 或은 寶篋印心呪經이라고도 하고 具名으로는 一切心 如來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니 唐의 不空譯이다. 그 內容은 四十句로 된 寶篋印陀羅尼의 功德을 說하였으니 이 呪을 誦讀하면 地獄에 떨어진 사람도 極樂에 가게 되고 病者는 快愈하여 壽命을 延長하게 하고 貧窮한 사람은 無量의 福德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現在까지도 眞言宗 天臺宗에서는 三大陀羅尼의 一로서 日常이것을 誦持하고 있다. 經의 初頭에 變像圖가 있고 左記가 있다.

天下兵馬大元帥吳越國王錢俶 造此經八萬四千卷捨入西關 博塔永充供養乙亥八月日記 錢俶王乙亥는 吳越開寶八年 西紀九七五年이니 距今 九百八十八年前이다.

### 洪武二十三年的馬符

秦弘燮

王은 義寂大師의 上申에 依하여 欣然히 五十種의 寶物을 마련하여 使者를 高麗에 派送하니 麗王光宗은 勅命으로 諦觀法師로 하여금 天臺三大部分의 智論疏 仁王疏 華嚴骨目 等 많은 典籍을 携帶하고 光宗十二年(九六一)에 渡宋하여 十餘年間 獻身勞勩함에 天臺宗을 爲始하여 佛敎全般을 復興하여 大陸의 佛日을 再輝하게 하였다.

諦觀法師는 天臺宗의 中心地인 螺溪에 十年을 止宿하며 講經에 힘쓰다가 一日 忽然히 端坐入寂하였다. 그後 法師의 居室에 遺置한 篋中에 서 放光의 奇瑞가 있기에 그것을 열어 보니 篋底에 天臺四敎儀라는 法師의 著書가 秘藏되어 있었다. 이것은 全佛敎의 要經을 五時로 敎判하고 化儀의 四敎과 化法의 四敎로 分하여 各敎의 敎理, 斷惑의 順序를 明示하여 天臺宗의 大綱을 至極히 簡易하게 明示하여 至極히 容易하게 理解하도록

昌德宮에 明朝의 馬符가 所藏되어 있다. 우리나라 馬牌에 該當하는 것으로 驛院에서 馬匹을 徵發할 수 있는 符標이다. 아마도 明朝에서 發行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符標에 依하여 馬匹이 徵發되었던 듯하다.

符標는 織物로서 長六·一·七cm 幅三三·五cm 且 그 뒤에 全長一四·一·五cm의 花文綾絹으로 背帖하여 篋子같이 만들었다. 右側에는 主文이 있고 中央에 馬一匹이 있고 左側에 年月日이 있다. 主文은 如左하다. 皇帝聖旨公差人員經過驛分持此符驗方許



應付馬疋如無  
此符「檀便給  
驛各驛官吏  
不行執法循情  
應付」者俱各  
治以重罪宜令  
準此

洪武二十三年

以上과 같다. 本

符標는 바탕을綾織으로 짜고 文字나 馬匹만은平織으로 짜 있다. 周圍에는 幅四·五cm의 雲文帶를 둘러는데 이帶의 外廓線과 內廓線은 靑, 黃, 분홍색의 三色을 三重으로 둘러고 그 안에 淡褐, 靑, 분홍, 綠의 各色으로 雲文을 수놓고

上下에 二匹, 左右에 各 一匹의 龍이 淡褐色으로 수놓아져 있다. 文字는 黃色으로 짜고 그 위에 또 黑色으로 짤으며 馬匹은 안장을 엮고 疾走하는 形態인데 靑, 靑, 綠, 黑, 분홍의 各色으로 짜져 있다. 年月日 옆에는 「達字參拾號」라 墨書되었고 그 위에 一一·九×二二·六cm의 陽字「制誥之寶」印이 찍혀 있다.

以上은 이 符標의 大綱인데 比단의 質로 보나 樣으로 보나 文脈으로 보나 中國産임은 틀림없다. 洪武二十三年은 高麗 恭讓王二年(西紀 一三九〇)으로 高麗가亡하기 二年前의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昌德宮에

保管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王家를 通해서 傳해지지 않았나 짐작된다. 李朝時代馬牌에도 반드시「〇字」의 表示가 있드시 여기도「達字」의 表示가 있다. 「參拾號」의 數가 있으니 같은「達字」標에도 號數가 있었던 듯하다. 또 말이 二匹만 그려 있는데 이것도 말의 數에 따라 어떠한 區分이 있었던 듯도 하다. 織物의 色彩는 多少 褪色된 듯도 하나 아직도 잘 남아 있으며 織造技術도 相當히 發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新羅 靈廟寺址의 推定

洪 思 俊

지난 五月十一日 城乾里 西川 河心에서 瓦當類와 礎石이 露出된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가본 結果 果然 舊西川이 松花山기슭을 돌아 나갔던 河床과 現西川이 흐르는 그 中間地點에서 縱二十六m 橫二十七m의 區域內에 金堂址로 認定되는 四方地臺石과 四角形礎石이며 木塔址로 比定할 수 있는 建物址를 알게 되었다. 이 곳에서 出土되는 瓦類는 主로 高麗時代것과 李朝時代의 불맞은 것들이 多數보이며 無文磚破片도 間或發見되었으나 아직까지 新羅時代瓦當은 보지 못하였다. 隣近部落人의 말에 依하면 이곳 寺址一帶를 조장(操場)이라 하며 金堂址로 認定되는 곳을 대사(大寺)라 한다. 그리고 寺址에서 南南東一五〇m 程度距離의 現西川一部에 연동빙(蓮池)이 있었다 한다. 이 연동빙周圍에는 느티나무(槐木)가 한아름되는 것들이 四十年前까지 있었고 그 연동(蓮塘)이 있던 곳도 住民은 指摘하는 것이다. 李朝時代에는 慶州의 營將이 있던 곳을 영말(營村)이라 하여 城乾里 西川東의 部落이 되었다 하며 罪人을 이 寺址에서 死刑하였다고 하는데 人家와 떨어져 있는 關係로 그곳에서 斬首하였는지 未詳하다.

日政以後 靈廟寺址를 推定하기를 金山齋附近 일것이다 하는 論議가 있었고 確實한 地點을 아지 못하였다 한다. ① 지난 一九五九年 『사라號誌